****

**선교 활동 보고**

 **“¿Cuándo te vimos?” "우리가 언제 당신을 뵈었나이까?"**

장로교 청년 및 트리에니엄 사무국(Presbyterian Youth and Triennium, PYT)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장로교 젊은이들을 하나로 묶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협력적인 방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PYT는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 당신을 뵈었나이까"라는 주제에서 영감을 얻은 4가지 무료 온라인 리소스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을 뵈었나이까?" 자료는 원래 PYT BEYOND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도의 일부로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트리에니엄에서 하는 내용, 교육, 대화를 확장하는 한 방식으로 어디에서나 트리에니엄에서 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합니다. BEYOND는 정의, 인식, 신실함에 기반을 둔 신앙에 대한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고 다시 퍼트리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이용해 만들어진 행사 중 하나가 지난 4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페잇빌 제일 히스패니 장로교회에서 열린 "¿Cuándo te vimos?" (k**w**an.do te veemos) ("우리가 당신을 언제 뵈었나이까")입니다. 이 행사는 정신 건강에 중점을 두었고, 파이에트빌 기술 전문 대학의 응급 의학 서비스 프로그램, 지역 응급의학과, 장로교 청년 협의회와 정신과 의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곳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장로교의 네 가지 [특별 헌금](https://specialofferings.pcusa.org/) 중 하나인 [성령 강림절특별 헌금](https://specialofferings.pcusa.org/offering/pentecost/)의 목적입니다.

성령 강림절 특별 헌금의 주제인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교회 밖과 교회 안을 오가는 이벤트와 매우 뚜렷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성령강림절 특별헌금은 PYT를 지원함으써 젊은이들에게 혜택을 줄 뿐 아니라, 미국장로교 총회 선교국의 [청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yav/)과 ["어린이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다](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compassion-peace-justice/child/)"라는 전국적인 이니셔티브의 기금 마련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령강림절 특별헌금의 40%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청소년 사역을 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60%는 장로교 선교국의 사역을 통해 위험에 처한 어린이와 청소년 및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에 돌아올 40%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컨퍼런스 참가자 중 한 명인 17세의 헥터 카르데나스는 "장로교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매년 성령 강림절 헌금을 통해 '우리가 언제 당신을 뵈었나이까?'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활동을 경험하고,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같은 일을 할 여력이 없는 교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이러한 행사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노회들이 더욱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아낌없이 나누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과 아낌없이 나눈는 것, 이것이 '성령 강림절 특별 헌금'을 통해 우리가 공유하는 사명입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기부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기부하면 많은 기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저희 모두는 당신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통치를 닮은 세상을 꿈꾸나이다. 저희는 오늘 젊은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특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신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러한 일을 할 것을 다짐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